

연중 제 26 주일

제 1 독서 : 에제 18, 25-28

제 2 독서 : 필립 2, 1-11

복 음 : 마태 21, 28-32

순정이

“어려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필립 2, 5).

강론

“가자 흥등가로!”

김병엽 신부 / 삼례 천주교회

전장 생략, 20년 징역에 8년간의 교역생활을 하였지만 12년의 형기를 남겨 놓고 있었다. “진찰 결과 암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신부님만 책임지신다면 오늘 저녁 석방시킬 수 있습니다.” “책임은 지겠지만 나머지 12년간의 보속은 어떻게 하고?” “신부님, 밤샘기도를 하면서 보속은 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 암통증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참겠습니다.” 아픈 배를 움켜 쥐고 사정을 하는 것이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 “신부님, 이 환자와 지금 나가십시오.” 교우 세 분과 환자와 함께 교도소를 나왔다. 여관에서 재우고 내일 대전에 있는 친구 집으로 데려다 줄 예정이었으나, 빗나가기 시작하였다.

내일 대학 예비고사를 치르는 고등학생들이 시골에서 올라와 여관마다 짹짹 차 있었다. 여인숙까지도. “할 수 없지. 나하고 같이 자는 수밖에.” “죽어도 싫습니다, 죽어도.”

“그러면 신부님, 그리로 가죠.” “거기가 어딘데?” “흥등가...” “에끼 이 사람. 농담도. 교우가 그게 할 말인가?” “신부님, 저렇게 아프면 절대 못합니다.” “뭘 말야?” “6계명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신부님, 그곳에라도 보내주십시오. 아파 미치겠습니다.” 세 명의 교우와 상의하였다. 우리는 ○○동 흥등가로 가기로 하고 로만 칼라를 단단히 여미고 환자와 함께 택시를 탔다. 택시에서 내리자 이곳저곳에서 손가락을 입에 대고 휘파람을 불며 오라는 손짓을 하였다. 진한 화장을 한 여인들이. “가자! 저 집으로.” 쓴살같이 빛이 들어왔다.

“여기 책임자 나오시오.” 서로 쭈뼛거리며 나오기를 꺼리는 눈치였다. “훗딱 나와, 바쁜게. 잘 들어, 나 전동 본당신부야. 오늘 잘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여관은 만원이고 그래서 여기에 왔어. 한 사람 자지만 네 곱을 즐겨야. 식사 두 끼에, 밤에 간호 부탁해. 알았지?” 옆방에서 듣고 있던 그 누가, “야! 오늘 재수 옴불었다. 오늘까지 사흘 굶었는데...” 다음날 환자를 대전에 있는 친구 집에 인계하였다.

오늘 말씀의 전례 정신은 실천적인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 더욱 인정받고 지도층의 위선을 겨냥하는 것으로 말만 무성하고, 말만 앞세우는 지도자는 창녀만도 못하다는 말씀이다.

소리

“추석 대명절”

추석은 설날과 나란히 우리네 2대 대명절 가운데 하나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같기만 하여라.”는 속담처럼 추석은 풍요롭다. 여름내내 땀 흘리며 일군 오곡백과를 거둬들이는 기쁨으로 인심도 둥근 보름달만큼이나 마냥 후하다.

чит수확한 햅쌀로 떡과 술을 빚고 사과와 배 등을 차려 놓고 차례를 지낸 뒤 가족들과 함께 성묘를 하며 조상들께 감사와 덕을 기린다. 또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부녀자들이 보름달로 대낮같이 밝은 마을 공터에서 수십명씩 손에 손잡고 원을 그리며 노는 ‘강강수월래’ 같은 민속 놀이로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오른다.

그런데 요즘 들어선 이같은 추석 모습을 볼 수 없어 안타깝다. 우리 농촌이 농·수·축산물 수입 자유화로 시름에 잠기면서 옛날 같은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 추석을 맞아도 즐겁지가 않은 것이다. 신문과 방송에서만 민속놀이를 소개하고 일부 지역에서 행사로 치루는 놀이가 고작, 어린시절 손꼽아 기다리던 추석은 아무데서나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탓이리라.

다만 산업문명이 발달되면서 가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이농현상으로 고향을 떠난 형제 자매들이 추석을 맞아 귀향하는 인파로 전국이 한바탕 북새를 이루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다. 여기에 성묘란 허울좋은 구실로 가을의 연휴를 즐기는 인구가 크게 늘어 추석을 앞두고 관광지 호텔과 여관의 빈방이 없을 정도다.

금년에는 많은 비와 저온현상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다른 어느 해보다 컸다. 추석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모두가 짹짹 보름달만큼 이웃 사랑과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풍요로왔으면 한다. □

순정이 산책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③

“순교는 그리스도인의 씨앗”

■ 병인박해(1866-1873년)

• 배경 및 원인

12세의 고종을 앞세워 정권을 장악한 흥선 대원군은 1864년 시작된 러시아의 강력한 통상 요구와 남하정책으로 인해 궁지에 몰리게 된다. 이때 승지(承旨) 남종삼(요한)이 “프랑스 선교사의 힘을 빌면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청원을 올리자 대원군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로부터 약 한달 후인 1866년 1월 중국에 간 사신이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의 내용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 선교사들을 타치는 대로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천주교에 반대하던 정부의 고관들은 힘을 얻어 대원군이 천주교와 교섭하려는 것을 공공연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또한 천주학쟁이가 운현궁(雲峴宮)에까지 드나든다는 소문을 들은 풍양 조 씨 조대비마저 천주교도의 책동을 비난하자 대원군은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결심하고 선교사 체포령을 내린다. 이와 함께 흉년으로 인해 민심이 동요되자 대원군은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게 된다.

• 대표적인 순교자

제 4대 조선교구장 베르뇌(張) 주교가 1866년 2월 23일 체포되어, 브르트니에르(白) 신부, 도리(金) 신부와 함께 3월 7일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에 처해졌다. 같은 날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는 남종삼, 홍봉주(토마스) 등이 참수되었다.

이어 3월 30일에는 베르뇌 주교의 뒤를 이어 21일간 제 5대 조선교구장을 지낸 다블뤼(安) 주교와 장주기(요셉), 황석두(루가) 등이 충남 보령의 갈매못에서 순교하였다.

• 특기할 만한 사건

박해가 치열해지자 피신해 있던 리델(李) 신부(후에 제 6대 조선교구장이 됨)는 1866년 7월 조선을 탈출, 중국 천진으로 가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에 로즈 제독은 프랑스 선교사들의 살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해 9월 군함 7척을 이끌고 한강의 양화진(楊花津)을 거쳐 서강(西江)에까지 쳐들어왔다. 그리고 10월 7일에는 강화도를 점령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이른바 병인양요(丙寅洋擾)다.



그러나 대원군은 강화도에서 프랑스 함대를 몰아낸 후 프랑스 함대가 진출했던 양화진(현재의 절두산)에서 수천명의 교인을 처형하였다.

이후 박해가 잠시 주춤해졌으나 1868년 독일인 오페르트가 대원군의 부친 남연군(南延君)의 묘를 도굴하다 실패한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박해는 다시 가열되었다. 그후 1871년 신미양요(辛未洋擾) 등을 거치면서 대원군은 척화비(斥和碑)를 세우는 등 1873년 실각할 때까지 계속해서 천주교를 박해했다.

• 결과

이 기간 동안 8천-2만 명으로 추정되는 순교자가 생겨났고, 살아 남은 교우들도 집과 재산을 잃고 간신히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순교자들의 거룩한 피를 밑거름으로 삼은 조선천주교회는 1886년 한불(韓佛)조약 이후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된다.

1890년 제 8대 조선교구장으로 임명된 뒤틀(閔) 주교는 시복 수속을 위해 병인박해 순교자들의 기록을 모은 「치명일기」를 간행했다. 여기에 수록된 8백77명의 순교자 중 24위가 1968년 복자품을 거쳐 1984년 성인품에 올랐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요한 12, 24-25).

1급 자동차 정비공장
군산공업사
 레카차 주야 대기
 김 동 석(리우렌시오)
 김 금 자(마리아 고레띠)
 군산 소룡동 세무소 뒤
 ☎ 63-9302~4

아롱다롱 아가 놀이방
 대상 : 0세~3세
 안 생 기(가브리엘)
 김 진 성(베로니카)
 삼천동 풍남중학교 앞
 ☎ 224-4782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상·드레스마춤 내어
최 윤경 (유리인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841-2496, 855-8653

드라이크리닝 전문점
 양복 5벌 분량을 30분에
 값은 7,000원
 자동 다리미 설치, 가죽, 카페트
송 호 신(미카엘)
 영동동 신일APT 상가
 ☎ (0653) 855-1547

잡간

대전 세계박람회 바티칸관

8. "인류는 하나"



프랑스 폐지에 가보면, 오늘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종교와 국가와 이념을 초월하여 이곳에 몰려들고, 화해와 일치의 정신으로 변화된 후 어디서나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정신은 가톨릭이건 개신교건 또는 이슬람교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랑한다는 것이다. 격변기 시대에 화해와 일치를 실천한 교황 요한 23세도 "아, 폐제, 그 작은 봄소식"이라며 반겼다.

건원기간일 수 있는 종파간의 이질성이 이렇게 극복된다면, 뿌리 깊은 흑백간, 국가간, 이념간의 대립도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에 이르게 된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서로의 가시권 안에 든 지금, 어느 한쪽의 불행과 불안은 인류 공동체의 관심사로 등장하여 더 능력있는 다른 한쪽이 그 해결에 나서게 되고, 인류 공동의 과제에는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음을 본다. 지금 인류 공동의 과제는 무엇인가. 곳곳의 기근문제와 국지 전쟁 등을 해결해야 하고, 생명운동과 세계의 진정한 평화의 정착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벌여야 하며, 궁극적 목표인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모든 나라 온 인류가 하나되어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과학 기술은 거기에 유용해야 하며, 종교는 그것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한다.

교구 소식

※ 대전 세계박람회 바티칸 전시관을 위한 제2차 헌금: 9월26일(일) 각 본당에서 실시됩니다.

1. 이병호 주교님 영명 축하미사: 9월27일(월) 오전10시 가톨릭센터.
2. 금육재 관면: 10월1일(금) 추석 연휴 관계로 관면함.
3. 교구청 휴무: 9월29일-10월2일, 추석 연휴 관계로.
4. 가톨릭 문우회 모임: 10월2일(토) 오후3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5. 소리개제 천주교 묘지 추석 합동 위령미사: 9월30일(목) 낮12시, 오전11시30분 합동 연도.
6. 휘폴라레 모임: 10월2일(토) 오후2시 군산개정간호대학, 대상-일반인, 10월3일(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대상-국교부터 일반인.
7. 성모의 기사회: 10월2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 전복일보, 전북도민일보 집필진을 소개합니다: 전북일보 성당의 종소리(매주 월·목)-최용준, 송영진, 장상원 신부. 전북도민일보 삶의 자리(매주 화·금)-권이복, 서석희, 장상호, 이영우 신부.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 축! 영명: 27일(성빈첸시오) 이병호 주교님, 김진철 신부님, 29일(성미카엘·가브리엘·라파엘) 안용기, 김종길, 박종상, 범영배, 박찬길, 정규봉, 이사정 신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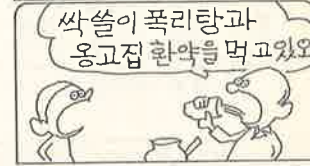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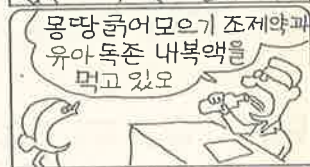
- 성소모임 성마오로딸수도회: 10월3일 오후2시 성마오로 서원(0652)252-3398.
- 살레시오수녀회: 10월3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0681)33-2578.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상품 우리가 씹시다(2)

수입밀은 수확 후에만도 21종의 농약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밀은 농약을 쓰지 않고 재배하므로 우리의 건강 먹거리로 선택합니다.

요심이 (1048) 김병오



원평 성당에서 직접 재배한

꿀 배

1. 판매기간: 8.21(토) - 10.10(일)
2. 가격: (8Kg 1상자당)
 - 특: 20,000원 대: 17,000원
 - 중: 14,000원 소: 8,000원
3. 구입 문의: (0658)43-0881,0880 43-4236

전주 성심여자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정기 총회

때: 10월 3일 오후 2시
곳: 동창회관(본교 내)

(有) 경일건설

조립식 건축, 사무실 칸막이, 건축, 토목, 샌드위치판넬, 콘테이너 하우스

김 해 선(레미지오)

구 소방서 ←→ 홍국생명 중간
☎ (0652)75-0161 · FAX 71-6302
호출기 012-681-0055

국악 연수생 모집

1. 교육: 민요 노래와 장고, 북과 판소리 등
2. 모집: 기초반(9월30일까지)
3. 시간: 매일 오후 3시-4시30분
4. 곳: 동국대학교 내 사회교육센터
5. 문의: 77-1941(국악교실) 이 상 덕(대건 안드레아)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동성 연와(전북 총대리점)

삼진요업·한국 적연와
테라코타·성광 요업
각종 적벽돌 KS 제품만 취급

권명자(데레사)
시청 뒤 우진빌딩 옆
☎ 84-9005

문구 사무용품 도매 전문

남문 노트사

원수관(야고보)
심경이(마리아)
다가동 우체국 앞

☎ (0652) 83-3352
FAX 83-7721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동주

- ◎ **오늘은 바티칸관을 위한 2차 헌금 있음.**
1. 추석명절 합동 위령미사 예물 접수: 먼저가신 선영들을 위하여 참제사인 미사를 봉헌합니다. 사무실에 접수(29일까지)
 2. 추석명절 대축일 미사시간 안내: 30일(목) 새벽 5시30분
 3. 미사시간 변경: 10월1일 저녁미사만 7시30분에서 7시(다른 미사는 종전과 같음)
 4. 본당의 날: 10월10일 체육대회, 많은 참여바랍니다.
 5. 모임: ①제대회(28일 어머니미사 후) ②울드레아(3일 장엄미사 후) 6. 알람: ①10월1일(금)-갑육제 관면입니다. ②다음주일(3일)-성소후원금 납부의 날 ③군인주일(3일)-2차 헌금 있음. 7. 금주 청소: 인후1,2번. 차주 청소-인후3,4번.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성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태

- ◎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영세자 115명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금주: ①대전 세계박람회 바티칸관 운영을 위한 2차 헌금 있음 ②차량 축성식(공식미사 후) ③성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2. 추석 한가위 대축일미사: 오전 5시30분, 오전 7시(저녁미사 없음)
 3. 추석 합동 위령미사 접수: 오늘까지.
 4. 자모회 임원 개편: 회장-김복덕(분다) 부회장-김옥남(세소리) 서기-조인숙(루시아) 회계-이영자(팔다)
 5. 치주: ①군인주일(2차 헌금) ②울드레아(공식미사 후) ③계속 글라라행회(후 1시30분) ④요셉회(후 6시)
- ☐ **지나주 불헌금: 1,955,22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인

1. 군인주일 2차 헌금: 10월3일 주일.
 2. 추석 미사시간 안내: 30일 오전 6시, 10:30.
 3. 추석 합동 위령미사 예물 접수: 29일까지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4. 회합: ①대건회-3일 공식미사 후 ②사목회-3일 저녁미사 후
- 금주 전례: 해설-조옥래, 독서-유덕열 씨 부부
봉헌-김연길 씨 가족
- 추석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나정섭 씨 부부
봉헌-조백환 씨 가족
- 차주 전례: 해설-최옥남, 독서-지해룡 씨 부부
봉헌-안철조 씨 가족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상근

- ◎ **경축! 견진성사 및 본당의 날, 엑스포 바티칸관 2차 헌금.**
1. 한가위 대축일 합동 위령미사: 30일 전 5시30분, 10시30분 선영들을 위해 가장마다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2. 특별강론: 범석규 신부, 다음주일 매 미사때 마다.
 3. 이웃돕기 봉사의 날 및 은퇴신부님 방문: 28일 후 4시, 사목회 임원 및 사회복자 위원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유아세례: 2일 후 3시 사무실에 미리 접수바랍니다.
 5. 교무금 납부요일: 26일 명절 전에 의무를 다하도록 합니다.
 6. 다음주일은 군인주일: 2차 헌금 준비바랍니다.
 7. 직원 휴무: 30일 오후부터 2일까지.
 8. 폐품 수질: 수은전지와 음료수 깡통고리 모으기, 1인 두개 이상.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한동욱

1. 본당발전을 위한 2차 헌금: 오늘 미사중.
 2. 모임: ①성모회-공식미사 후 ②꾸리아, 요셉회-다음주일 ③사목회-2일(토)
 3. 추석 합동 위령미사: 오전 10시, 예물 접수-사무실에.
 4. 다음주일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입니다.
 5. 군인주일: 다음주-2차 헌금.
 6. 추석 전례: 해설-박영미, 독서-①정광철 ②김금자
봉헌-김종석 씨 부부
- 차주 전례: 해설-권원규, 독서-①박귀철 ②이석남
봉헌-이기봉 씨 부부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이성우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병갑

1. 꾸리아: 오늘 미사 후.
2. 추석 합동미사: 30일(목) 오전 10시-미사에물은 사무실에 접수.
3. 성모회, 자모회: 다음주일 미사 후.
4. 사목회: 다음주일 오후 7시.
5. 성지순례: 10일(일) 솔피성지, 회비-만원. 반장님께 접수하세요.
6. 예비자 교리반 인도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7. 성당청소: 각 구역별로 협조해주시시오-토요일 오후 4시.
8. 폐수은 건전지를 사무실 수거함에 모아 주세요.
※ 세계 박람회 바티칸관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금주 전례: 장병순, 손금구, 독서-봉헌: 정인자, 서동호
차주 전례: 김희숙, 강희연, 독서-봉헌: 김삼희, 정구현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용

- ◎ **연중 제 26주일!** (대전 세계박람회 바티칸관을 위한 2차 헌금 오늘 있음)
1. 본당 임시총회: 9월26일(오늘) 공식미사 후(참석대상-사목회, 꾸리아, 각 반장님, 성모회, 성심회, 자모회, 청년회, 각 레지오 Pr 간부들 제단제장)
 2. 꾸리아: 10월3일(다음주일) 오후 2시.
 3. 사목회: 10월6일(수) 저녁미사 후.
 4. 자모회: 10월6일(수) 오전 10시30분.
 5. 추석 합동 위령미사 예물: 9월28일(화) 저녁미사까지 사무실에 접수바람.
 6. 추석 대축일 미사시간: 9월30일(추석) 새벽 6시, 오전 10시.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치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상호
FAX 223-3821 사목회장이 동섭

- ◎ **오늘은 연중 제 26주일입니다.**
1. 사목회: 10월8일(금) 오후 8시.
 2. 청년 레지오: 오늘 12시(교육관)
 3. 유아세례: 오늘 오후 4시.
 4. 추석 합동 위령미사: 9월30일(06시와 10시 2번 있습니다) 조상들의 영혼 위해 정성껏 마음으로 합동 위령미사에 참여합니다. (미사에물은 사무실에서 접수받습니다)
* 전례대 전자 유언을 뜻있는 은인이 기증하였습니다. 이 은인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2백만원)
미사 안내: 금주-화해의 모후, 인류의 모후
차주-천상의 모후, 천사들의 모후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유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 ◎ **연중 제 26주일.**
1. 오늘 공식미사 후: 요셉회, 사라회.
 2. 오늘 주일학교 위한 2차 헌금.
 3. 이번주 구역, 반미사: 없음.
 4. 추석 합동 위령미사: 9.30(목) 오전 9시.
 5. 10월2일(토): 어린이미사 없고 오후 6시 저녁미사 봉헌.
 6. 다음주 공식미사 후: 꾸리아.
 7. 축하드립니다: 박희준(태례사) 수녀님 분명 축일.
 8. 청소봉사: 5구역 1번, 2번.
 9. 10월부터 미사시간 변경합니다. 저녁 8시미사가 7시30분으로 변경됨.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순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임익도

1. 박람회 바티칸관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2. 모임 안내: ①사목회-저녁미사 후 ②반석회, 요셉회-공식미사 후 ③여성분과-1일(금) 10시 미사 후
3. 추석 합동미사 예물: 선영을 위하여 정성껏 봉헌합니다.
4. 예비자 1인씩 인도합니다.
차주 모임: 꾸리아, 성모, 성심회, 군인주일: 2차 헌금
금주 전례: 해설-이건태, 독서-①정상수 ②조소래
봉헌 안내-김상권 부부, 김중훈 부부
차주 전례: 해설-김용만, 독서-①표근중 ②김영자
봉헌 안내-권일만 부부, 김용신 부부